

Level 8 Fiction

Meeting Mozart (모차르트를 만나다)

Words in the pictures

a chandelier / a portrait / harpsichord / a candelabrum

an ancient pottery / a fireplace / a colonial wig / a colonial man clothing

an emperor / a fidgeting crowd / a colonial wig in miniature

☐ P2: Nadim was learning to play the piano.
나딤은 피아노 연주를 배우고 있었어요.

He enjoyed his lessons and now he could play with both hands.
그는 수업을 좋아했고 이제 두 손으로도 피아노를 칠 수 있었어요.

In fact, he was quite good, so his dad got him a keyboard.
사실 그는 꽤 잘 쳐서 그의 아버지는 나딤에게 피아노 건반을 사줬어요.

☐ P3: Nadim took the keyboard to show Biff and Chip.
나딤은 비프와 칩에게 보여주려고 건반을 가지고 갔어요.

"It plays different sounds, like an organ or guitar," he said.
"오르간이나 기타처럼 이것도 여러 소리를 연주해," 그가 말했어요.

"It can play a drum beat, and you can record what you are playing."
"이걸로 드럼 소리도 낼 수 있고, 네가 연주하는 걸 녹음할 수도 있어."

☐ P4: Nadim had learned to play 'Walking in the Air'.
나딤은 '하늘을 걷다'를 치는 것을 배웠어요.

He played that and then a minuet by Bach.
그는 그것을 연주하고는 바흐의 미뉴에트를 연주했어요.

"I like this one the best," he said.
"나는 이 곡이 제일 좋아," 그가 말했어요.

"A minuet is a sort of grand dance."
"미뉴에트는 멋진 춤의 일종이야."

□ P5: Mum came into the kitchen to listen.
엄마가 부엌으로 와서 연주를 들었어요.

"You play really well, Nadim," she said.
"나딤, 너 정말 잘 치는구나," 그녀가 말했어요.

Just then, her phone rang.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어요.

"It's an important call," she said. "Why don't you take the keyboard up to Biff's bedroom?"
"중요한 전화네," 그녀가 말했어요. "비프 방으로 피아노 가지고 올라가지 않을래?"

□ P6: "Play something else, Nadim," said Chip. "Try it with the drum beat on."
"다른 것도 쳐봐, 나딤," 칩이 말했어요. "드럼 소리도 켜서 같이 쳐봐."

Then the key began to glow.
바로 그때 마법의 열쇠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Nadim was still holding the keyboard when they were whisked into a new adventure.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휙 데려가는 순간에 나딤은 피아노 건반을 들고 있는 채였어요.

□ P7: The key took them back in time.
마법의 열쇠는 그들을 과거로 데리고 갔어요.

They were in a beautiful room with lots of mirrors.
그들은 거울이 많은 아름다운 방 안에 있었어요.

"What an enormous room!" said Biff.
"방이 이렇게나 크다니!" 비프가 말했어요.

"We must be in some sort of palace."
"우리 아마 궁전 같은 데 있나 봐."

□ P8: Through a doorway they could see a boy sitting at an instrument that looked like a small piano.
그들은 문 사이로 한 소년이 작은 피아노같이 생긴 악기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I think that's a harpsichord," said Nadim.
"내 생각에 저건 하프시코드 같아." 나딤이 말했어요.

Then a man strode in.
그때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Why have you stopped playing, Wolfgang?" he demanded.
"볼프강, 왜 치는 것을 멈춘 거지?" 그가 따지듯 물었어요.

□ P9: "I'm tired, Father," the boy said.
"아버지, 저 힘들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I don't want to play this evening."
"저 오늘 저녁은 안 칠래요."

"You must!" The man sighed and held up his hands.
"쳐야 해!" 남자가 한숨을 쉬고는 손을 들었어요.

"The Archduke expects you to play. We cannot afford to upset him. He pays us to hear you play."
"대공은 네가 연주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우리는 그를 화나게 하면 안 돼. 네 연주를 듣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돈을 주잖니."

□ P10: "You must practise for the concert tonight," the man went on.
"너는 오늘 밤 콘서트를 위해 연습을 해야 해,"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No more nonsense! Now play!"
"더는 허튼소리 그만! 자 어서 쳐!"

The boy began to cry. "I won't!" he sobbed. "I can't."
소년은 울기 시작했어요. "안 칠래요!" 그가 흐느꼈어요. "전 못 쳐요."

He jumped up and ran out of the room.
그는 벌떡 일어나 방 밖으로 달려갔어요.

□ P11: The man saw the children.
남자가 아이들을 봤어요.

"We've been spotted, too," said Biff.
"우리도 들켰다," 비프가 말했어요.

"We'd better run. Come on! Follow the boy."
"우리 뛰는 게 좋겠어! 서둘러! 저 남자아이를 따라가."

"Thieves! I'll have you locked up," shouted the man.
"도둑이다! 내가 너희를 잡고 말 테다," 남자가 소리쳤어요.

"Guards! Come quickly!"
"근위대! 빨리 와!"

□ P12: The boy ran up steps, round corners, through doors and along corridors.
소년은 계단을 올라, 모퉁이를 돌고, 문을 통과해 복도를 따라 뛰었어요.

The children ran after him, trying to keep up.
아이들은 뒤처지지 않게 그를 쫓아갔어요.

"This is an enormous place," panted Chip.
"이건 정말 거대한 궁전이다," 칩이 헉헉거렸어요.

"I wonder where we are."
"난 우리가 어디쯤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 P13: At last the boy ran into a room, slammed the door and locked it.
마침내 소년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는 잠가 버렸어요.

"Well, we got away from that man," said Biff.
"음, 우리 그 남자를 따돌리긴 했어," 비프가 말했어요.

"But now what do we do? Shall we try knocking?"
"그렇지만 이젠 어쩌지? 문을 두드려 볼까?"

□ P14: Chip listened at the door.
칩이 문에 귀를 대고 들었어요.

"I can hear him crying."
"그가 우는 소리가 들려."

He tapped on the door gently. "Er ... hello ... Wolfgang," he called softly.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음 ... 저기 ... 볼프강," 그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A shoe thudded against the door. "Go away!" came a voice from inside.
신발 한 짝이 문에 와 쿵 부딪혔어요. "저리 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 왔어요.

□ P15: "Wolfgang!" gasped Biff.
"볼프강이라니!" 비프가 헉하고 놀랐어요.

"I've had a thought! Do you think he might be Mozart? He was called Wolfgang."
"나 아까부터 생각했어! 그가 모차르트 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해? 그가 볼프강이라고 불렸잖아."

"Mozart, eh?" said Nadim thoughtfully.
"뭐라고, 모차르트?" 나딤이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I think I know how to get him to open the door."
"나 어떻게 해야 그가 문을 열지 알 것 같아."

□ P16: Nadim switched on the keyboard and played a note.
나딤은 건반을 켜서 한 음을 쳤어요.

"Great!" he said. "It still plays even though we have gone back in time.
"훌륭해!"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과거로 왔는데도 여전히 연주가 되네.

You two hold it and I will play 'Walking in the Air'."
너희 둘이 이걸 들고 있으면 내가 '하늘 위를 걷다'를 칠게."

□ P17: Nadim had only played a few bars when the door suddenly opened.
나딤이 몇 마디 치지도 않았는데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The boy's eyes were wide with astonishment.
소년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지요.

"That's an amazing instrument. It sounds tuneful, but so strange!" he said.
"그거 굉장한 악기다. 소리가 아름다우면서, 되게 이상해!" 그가 말했어요.

"What a simple tune! What else can you play?"
"이렇게 단순한 소리를 내다니! 너 다른 거 뭐 칠 수 있어?"

□ P18: They went inside and Wolfgang locked the door.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볼프강은 방문을 잠갔어요.

Nadim played the minuet by Bach.
나딤은 바흐의 미뉴에트를 연주했어요.

"That's better," said Wolfgang.
"그건 훨씬 낫군," 볼프강이 말했어요.

"Now keep playing with your left hand. I'll add a few ... twiddly bits ... to the tune."
"이제 왼손으로 계속 쳐봐. 몇 가지를 더 해볼게 ... 섬세한 소리를 ... 곡에 맞추어."

□ P19: "It's amazing," laughed Wolfgang.
"이거 굉장한데," 볼프강이 웃었어요.

"I don't have to strike the keys as hard as I do on the harpsichord. This instrument is brilliant."
"내가 하프시코드에서 하는 것처럼 건반을 세게 누를 필요가 없어. 이 악기 훌륭하다."

"You play it brilliantly, too," said Nadim.
"네가 훌륭하게 잘 치기도 해," 나딤이 말했어요.

At that moment, there was loud knocking on the door.
그 순간, 문을 광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 P20: It was Wolfgang's father. "Open the door," he called.
볼프강의 아빠였어요. "문을 열어라," 그가 소리쳤어요.

"Now, please, Wolfgang! The Archduke wishes to hear you play.
"자, 제발, 볼프강! 대공께서 네 연주를 듣고 싶어 하셔.

If you don't, we will be ruined. Do you want me to break this door down and drag you on to the stage?"
네가 연주를 안 하면 우리 정말 큰일 나. 너 내가 이 문 부수고 너를 무대로 끌고 가길 원하니?"

□ P21: Wolfgang began to cry. "I can't play tonight," he sobbed.
볼프강이 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은 못 쳐요," 그가 흐느꼈어요.

"The Archduke is so scary and bad-tempered.
"대공은 너무 무섭고 성질이 고약해요.

I get terrible stage fright and I am too nervous to play."
저는 끔찍한 무대 공포증이 생겨서 연주하기 너무 떨려요."

At that moment, Nadim had a brilliant idea.
그 순간, 나딤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 P22: "Your Imperial Highness," announced Wolfgang's father.
"전하," 아빠가 알렸어요.

"I present my son, Wolfgang Mozart, who will start by performing with another young musician, Nadim."
"나딤이라는, 또 다른 젊은 음악가와 함께 연주를 시작할 제 아들, 볼프강 모차르트를 소개합니다."

"Nadim's wearing a white wig," hissed Biff, trying not to giggle.
"나딤이 흰색 가발을 쓰고 있어," 비프가 웃음을 참으며 속삭였어요.

□ P23: Nadim laid the keyboard on a table and Wolfgang whispered, "Start by playing with both hands.
나딤이 탁자 위에 피아노 건반을 내려놓자 볼프강이 속삭였어요,
"두 손으로 연주하기 시작해.

When I say 'now', just play with your left hand."
내가 '지금'이라고 말하면, 왼손으로만 연주하고."

As Nadim began to play, something terrible happened.
나딤이 연주를 시작했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The keyboard went dead. The battery had run out.
건반이 꺼지고 말았지요. 배터리가 다 닳은 거였어요.

□ P24: The audience began to fidget. The Archduke frowned and sniffed impatiently.
청중은 초조해 하기 시작했어요. 대공은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이 난 듯 킁킁댔어요.

"Don't panic, Wolfgang," whispered Nadim. "We'll play the harpsichord instead."
"당황하지 마, 볼프강," 나딤이 속삭였어요. "우리 그 대신 하프시코드를 치는 거야."

"Well, hit the keys harder than you do on your instrument," said Wolfgang.
"그래, 그런데 네 악기에서 치던 것보다 강하게 건반을 눌러," 볼프강이 말했어요.

"Let's do it!"
"한번 해보자!"

□ P25: First, they played the minuet by Bach with Wolfgang adding lots of notes.
처음에, 그들은 볼프강의 다양한 음이 더해진 바흐의 미뉴에트를 연주했어요.

Then, to Nadim's surprise, Wolfgang began to play 'Walking in the Air'.
그러고는, 놀랍게도, 볼프강이 '하늘을 걷다'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Keep playing the left hand - but slowy," whispered Wolfgang.
"왼손으로 계속 연주해 – 하지만 천천히," 볼프강이 속삭였어요.

□ P26: "Well," said the Archduke to Wolfgang.
"그래," 대공이 볼프강에게 말했어요.

"If you play tunes like that, you will never be much of a musician."
"그런 식으로 곡을 연주하다가는, 절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없어."

He looked at Nadim. "You need to practise, young man," he said.
그는 나딤을 쳐다보았어요. "젊은이, 자네는 연습을 더 해야 해," 그가 말했어요.

"And you need to dress properly."
"그리고 옷도 좀 제대로 입고."

□ P27: "My heart sank when the keyboard went dead," said Biff.
"건반이 꺼졌을 때 가슴이 덜컥했어," 비프가 말했어요.

"But you were great on the harpsichord."
"하지만 너 하프시코드도 굉장히 잘 쳤어."

"Thanks, Nadim," said Wolfgang. "You helped me get over my stage fright.
"고마워, 나딤," 볼프강이 말했어요. "네가 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어.

But don't rely on that funny instrument. Get a proper harpsichord."
하지만 그 이상한 악기에 의존하진 마. 제대로 된 하프시코드를 하나 사."

Just then, the key glowed.
바로 그때, 마법의 열쇠가 빛났어요.

□ P28: "I've finished my phone call," called Mum. "Let me hear Nadim play a couple more tunes."
"전화 통화 다 끝났어," 엄마가 불렀어요. "나딤 연주를 몇 곡 더 듣자."

They took the keyboard downstairs and Nadim plugged it in.
그들은 아래층으로 건반을 가지고 가 코드를 꼽았어요.

He pressed the play button and an amazing thing happened.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 P29: The keyboard had recorded Nadim playing 'Walking in the Air' with Wolfgang.
건반이 볼프강과 함께 친 나딤의 '하늘을 걷다'를 녹음한 거였어요.

"That's rather good," said Mum. "Who's that playing?"
"그거 상당히 좋은데," 엄마가 말했어요. "누가 치는 거니?"

"Wow! It's me actually playing with Mozart," said Nadim.
"세상에! 이거 제가 모차르트랑 실제로 같이 친 거에요," 나딤이 말했어요.

"Hmm, yes!" laughed Mum. "I believe you!"
"흠, 그래!" 엄마가 웃었어요. "널 믿고말고!"

□ P30

Retell the Story
이야기 다시 말하기

Look at the pictures and retell the story in your own words.
그림을 보고 직접 얘기해보세요.

Nadim had learned to play 'Walking in the Air' and a minuet by Bach.
나딤은 '하늘을 걷다'와 바흐의 미뉴에트를 치는 것을 배웠어요.

Nadim was holding the keyboard when the key started glowing.
마법의 열쇠가 빛날 때 나딤은 피아노 건반을 들고 있었어요.

The children saw Wolfgang sitting at a harpsichord.
아이들은 하프시코드 앞에 앉아있는 볼프강을 봤어요.

Wolfgang ran away because he was tired, and the children followed him.
볼프강은 피곤해서 도망갔고 아이들은 그를 따라갔어요.

Wolfgang was astonished by Nadim's keyboard.
볼프강은 나딤의 건반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Nadim and Wolfgang played the keyboard together.
나딤과 볼프강은 함께 건반을 연주했어요.

The boy was too nervous to play in front of Archduke.
그 남자아이는 대공 앞에서 연주하기를 두려워했어요.

The battery of the keyboard had run out.
건반의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Wolfgang and Nadim played the two songs together.
볼프강과 나딤은 두 곡을 동시에 연주했어요.

Wolfgang thanked Nadim for helping him get over his stage fright.
볼프강은 자신의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서 나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The keyboard had recorded Nadim playing 'Walking in the Air' with Wolfgang.
그 건반엔 나딤이 볼프강과 함께 연주하는 '하늘을 걷다'가 녹음됐었어요.

□ P31

Look Back, Explorers
다시봐요, 탐험가

Q1: How did Nadim describe a minuet?
나딤은 미뉴에트를 어떻게 묘사했나요?

A1: He described it as a sort of grand dance.
그는 미뉴에트가 멋진 춤의 일종이라고 설명했어요.

Q2: How did Nadim get Wolfgang to open the door?
나딤은 어떻게 볼프강이 방문을 열게 했나요?

A2: Nadim played a note on the keyboard.
나딤이 건반에 한 음을 쳤어요.

Q3: The children were whisked into an adventure.
아이들은 모험 속으로 휙 데려가 졌어요.

What other words can you think of that mean the same as whisked?
'휙 데려가다'와 같은 의미가 있는 다른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A3: I can think of whip and sweep.
저는 휙 빼내다 와 쓸다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Q4: Why might Mum think that Nadim is joking when he says that he played with Mozart?
나딤이 모차르트와 함께 연주했다고 말했을 때 왜 엄마는 그가 농담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A4: Mum thinks Nadim is joking because Mozart was a famous composer of the Classical era.
모차르트는 고전주의 시대에 유명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엄마는 나딤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Q5: If you had gone on the magic key adventure, what questions would you have asked Wolfgang?
만약 여러분이 마법의 열쇠 모험을 떠났다면, 볼프강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나요?

A5: I would ask Wolfgang where he gets his inspirations from.
나는 볼프강에게 그가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Q6: Did you find out who wrote this piece of music?
이 악보를 누가 썼는지 알아냈나요?

A6: Mozart wrote this piece of music.
모차르트가 이 악보를 썼어요.

□ P32

What's Next, Explorers?
다음은 뭔가요, 탐험가?

Now you have read about Nadim performing with Wolfgang, find out all about Mozart as a musician and two other geniuses ...
지금까지 나딤과 볼프강이 함께 연주하는 것에 대해 읽었으니, 이제 음악가로서의 모차르트와 두 명의 다른 천재에 대해 알아봅시다 ...

Meet a Genius
천재를 만나다

Explorer Challenge for Meet a Genius
'천재를 만나다'에서 탐험가 도전

Find out which genius had a badly behaved dog ...
어떤 천재가 말썽꾸러기 강아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

You can find out by reading 'Meet a Genius'.
'천재를 만나다'를 읽으면 알아낼 수 있어요.